

언해 문헌에 수록된 한국한자음 이독자의 음의관계에 대한 수량비교연구*

廉載雄**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古代漢語 音變構詞과 언해문헌 수록 異讀字 音義關係 규칙대응
 - 2) 古代漢語 音變構詞과 언해문헌 수록 異讀字 音義關係 불규칙대응
3. 결론

1. 서론

漢語에서 音義關係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漢字의 讀音과 語義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특히 중국고대문헌에서 漢字의 讀音에 대해 주석을 가한 것을 “음”이라 하고, 語義에 대해 주석을 가한 것을 “義”라고 하며, 이를 합친 것을 “音義”라고 한다. 周祖謨는 “음의서는 전문적으로 글자의 독음과 의미를 해석하는 책을 가리킨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책을 통독하고서 그 중의 단어를 들어 그 독음과 자의에 주를 달았는데, 이는 중국 고문헌 중 특유한 체례이다.이러한 책은 전통 ‘소학’의 저작 중에서 한 부류를 형성했고, 자서·운서·훈고서의 체례와 달라서 일반적으로 ‘음의서’라고 부르거나 혹은 ‘음서’라고 부른다.”¹⁾라고 정의하였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建國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周祖謨,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 : p.452. “音義書專指解釋字的讀音和意義的書。古人爲通讀某一部書而摘舉其中的單詞而注出其讀音和字義, 這是中國古書特有的一種體例……這種書在傳統‘小學’著作中獨成一類, 與字書、韻書、訓詁書體例

音義書는 주로 경전에 나오는 글자의 독음을 변별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글자가 출현하는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다는 형식을 취하는데, 古代漢語에서 音義關係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經典釋文』, 『群經音辨』 등의 音義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音義書들을 참고하고 이 서적들을 분석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적절히 인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초기의 韓國漢字音(이하 “韓漢音”으로 약칭함)에서 漢字의 異讀字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해류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조선 초기부터 다양한 언해문헌들이 간행되기 시작했는데, 주지하다시피 조선시기에는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내세웠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 유교경전을 언해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세종대왕은 김문에게 명하여 사서(四書)를 번역 기술하게 하였고, 성종 때는 언해시집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를 간행했으며, 중종 때는 『번역소학(翻譯小學)』이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가경전에 대한 훈민정음 언해문헌뿐만 아니라 이른 시기에 출간된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眞言勸供·三壇施食文諺解)』 등 총 9종의 언해 문헌 중에서 韓漢音 異讀字를 古代漢語 異讀字의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音義關係를 비교 분석했다. 이 언해 문헌 속 韓漢音 이독자가 고대한어의 이독자와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대응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²⁾

不同, 所以一般稱為‘音義書’, 或稱‘音書’。”

2) 필자는 이전에도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여 언해 문헌에 수록된 韓漢音 이독자와 고대한어 이독자와의 음의관계에 대해 폭 넓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韓漢音 이독자가 반영하고 있는 음의관계, 대응비율, 발전양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 본론

1) 古代漢語 音變構詞와 언해문헌 수록 異讀字 音義關係 규칙대응

(1) 古代漢語 變聲構詞와 언해문헌 수록 異讀字 音義關係 규칙대응사례

① 降 [R강:H강:L항]³⁾

『廣韻』에서는 “降”字의 平去聲 異義異讀의 음의관계를 수록하고 있다. 독음이 평성의 下江切인 경우, “항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독음이 거성의 古巷切인 경우에는, “내려오다. 돌아가다. 떨어지다”라는 의미이다.(下江切:“降伏。”古巷切:“下也, 歸也, 落也。”) 『群經音辨·辨彼此異音』에서는 “내려오다라는 의미의 ‘降’자는 독음이 ‘古巷切’이고, ‘항복하다’라는 의미의 ‘降’자는 독음이 ‘戶江切’이다.(下謂之降, 古巷切; 伏謂之降, 戶江切。)” 周祖謨(1946:112)에서는 “降”字를 “음의관계가 달라서 변조된 경우(因音義不同而變調者)”로 분류하고 “‘降’자는 ‘내려오다’라는 의미이다. ‘내려오다’라는 의미의 ‘降’자는 독음이 ‘古巷切’이고, 거성이며, 성모는 見母이다. ‘항복하다’라는 의미의 ‘降’자는 독음이 ‘戶江切’이고, 평성이며, 성모는 匣母이다. 내 생각에는 ‘降’자의 독음이 거성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바로 『左傳·僖公十八年』의 ‘삼십일 동안 군대가 항복하지 않았다.’ 라는 구절에 대해 『經典釋文』에서 ‘降’자의 독음을 ‘戶江反’이라고 한 것이 가장 적절한 예라고 판단된다.(降, 下也。下謂之降, 古巷切, 去聲, 見母。伏謂之降, 戶江切, 平聲, 匣母。案降之讀爲去聲, 若左氏僖公十九年‘軍三旬而不降’, 釋文降音戶江反, 即其例也。)”라고 설명하였다.

漢語音變構詞의 관점에서 보면 “降”자는 상고음과 중고음의 운모는 완전히 일치하고 성모와 성조는 변화가 있었던 變聲構詞이자 變調構詞이다. “降”자의 原始詞는 見母 거성인 경우, “내려오다. 돌아가다. 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이로부터

3) 각각의 표제자의 우측에 괄호 [] 로 표시한 독음은 조선초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독음이 존재할 때는 콜론부호(:)를 첨가하여 표시했다. “L”은 평성을, “R”은 상성을, “H”는 거성과 입성을 표시한다. 다만 거성과 입성은 한국한자음 독음으로 그 구분이 명확하므로 별도로 기호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詞義構詞을 통해 匣母 평성의 滋生詞는 “항복하다”의 의미로 발전하였다. 조선시
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降”자는 平上去聲 異讀의 분포를 보이는데 그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降[R강]-“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추다.”(23)⁴⁾

『眞言25/b』 哀憫有情, 臨降道場, 加持呪水. (유정을 어여삐 여기사
도량에 내리시어 주로 물을 베풀고 지키소서.⁵⁾)

『三壇7/a』 願承三寶力加持, 今夜今時來降赴. (원하건대 삼보의 힘의
가지함을 받으사, 오늘 밤 이 때에 내려오소서.)

『翻小9/4/b』 先生方略降辭色. (선생이 그제서 말씀이며 낮빛을 잠깐
나직하게 하였다.)

降[滄](H강)-“넘치다. 범람하다.”(2)

『孟子6/25/b』 書曰: ‘滄水警余.’ 滄水, 洪水. (서경에서 ‘쏟아져 내리
는 비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라고 했는데, 쏟아져 내리는 물이란 홍수를 말
한다.)

언해자료에 수록된 독음이 상성인 “降[R강]”의 용례는 23개가 출현한다. 이 용
례들의 문맥상 의미는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추다”이다. 古代漢語의 음의관계로
볼 때,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추다”의 독음이 거성의 “降[H강]”이어야 한다. 하지
만 언해문헌에서는 모두 성조가 상성인 “降[R강]”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언해
문헌에서 독음을 거성으로 표기한 “降[H강]”의 용례는 2개가 있다. 이 독음의 글

4) 인용부호 속에는 언해자료 중 표제자와 해당 독음에 대응하는 표제자의 의미를 명시하였
다. 등근 괄호 속의 숫자는 언해자료 중 해당 독음과 의미를 가진 표제자가 언해 문헌에
수록된 횟수로 權仁瀚(2009a)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해 문헌 속의 한한음 이독자
에 대해서는 權仁瀚(2009a)을 참고하여 필자가 선정한 모든 표제자의 음의관계를 일일이
대조하여 음의관계를 파악하였다.

5) 조선시대 언해자료에 수록된 각 표제어에 대한 음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문의
언해본 해석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고에서는 언해본 저자들의 해석의도를 명확
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용례에 대한 언해본의 해석을 괄호 () 속에 첨부했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언해본의 원해석문이 아닌 역주자들의 현대국어의 해석문을 인용했
다. 다만 해당 표제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역주의 해석이 완전하지 않을 경
우, 본고의 저자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자는 모두 문맥상 “滄(古巷切, 見母, 去聲)”자의 통가자이며, 위에서 언급한 “降[R강]”의 음의관계와 별도로 “(물이) 넘치다. 범람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추다”라는 의미의 “降[R강]”자의 독음이 거성이 아니고 상성인 이유는 바로 조선중기의 언해문헌 가운데 상성과 거성의 표기가 혼재하는 현상인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시기의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상성이나 거성의 한자음을 언문(諺文)로 표기할 때, 일부는 古代漢語에서 상성인 한자음이 언해 문헌에서는 거성으로, 古代漢語에서 거성인 한자음이 언해 문헌에서는 상성으로 표기된 현상을 가리킨다.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현상에 대해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음절편향(音節偏向)”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이 규칙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의 원인 탐구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해석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언해 문헌의 상성과 거성의 독음자에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古代漢語 異讀字와 韓漢音 이독자의 음의관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해 문헌 속 “降”자는 고대한어의 음의관계에 있어서도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추다”라는 의미의 “降”자는 상성의 “[R강]”이 아니라 거성의 “[H강]”과 대응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언해 문헌 중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현상을 인정한다면 언해 문헌 속 상성의 “降[R강]” 독음이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추다”의 의미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한 가지 문제는 漢語變調構詞에서 상당 수량의 어휘가 上聲과 去聲의 변환으로 어휘를 생성하는 變調構詞法을 사용하는 上去聲變調構詞라는 점이다. 古代漢語에서 上去聲變調構詞인 어휘인 경우, 언해본에서는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현상이 존재하면 직접 비교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대한어와 언해문헌 중 韓漢音의 수량을 비교하고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의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할 것이다.

降[L항]-“항복하다. 항복시키다.”(1)

『眞言20/a』 充腸菜辛芋, 鉢降龍. (배를 채우려고 매운 토란을 캐고, 바리에 용을 항복시켰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평성인 “降[L항]”의 용례는 1개이다. 古代漢語에서 “降”자의 거성과 평성의 음의관계가 조선시기 언해문헌에서는 상성과 평성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降[L항]”의 의미는 “항복하다”이다. 위의 용례에서는 이로부터 使動用法으로 “항복시키다”라는 의미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언해 문헌의 “상거성혼용”을 인정하고 살펴보면, 古代漢語 중의 “降(古巷切)”자는 언해 문헌 중의 “降[R강]”자와, 그리고 古代漢語 중의 “降(戶江切)”자는 언해 문헌 중의 “降[L항]”자와 음의관계상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古代漢語 중 音變構詞의 규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언해 문헌 중의 “降[R강]”자는 “降”자의 통가자로 쓰였다. 이상의 각 용례에 대한 정리 분석을 바탕으로 古代漢語와 언해 문헌 속에 수록된 “降”자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수량비교표를 정리하였다.

“降”字의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降”字의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비율 (%) ⁶⁾
		降[R강]	降[L항]	降[H강]	
原始詞(見母, 去)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추다. (동사)	23	-	-	0{100}
滋生詞(匣母, 平)	항복하다. 항복시키다. (동사)	-	1	-	100
통가자(=滂)	넘치다. 범람하다. (동사)	-	-	2	관련없음
대응비율(%)		0{100}	100	관련없음	

6) 이 표에서의 “대응비율”이란 古代漢語 이독자의 原始詞와 滋生詞가 韓漢音(언해) 이독자의 음의관계와 부합하는 용례의 횟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음의관계가 부합하는 횟수/해당 韓漢音 총 횟수*100=대응비율(%)”이다. 예를 들어, 古代漢語 音變構詞 “降”字의 滋生詞와 언해 문헌 중 “降[L항]”의 대응비율을 계산하면, 1/1*100=100%이다. {} 괄호 앞의 숫자와 괄호 안의 숫자는 각각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비율과 고려하고 계산한 비율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古代漢語 중 “降”字의 原始詞와 언해 문헌 중 “降[R강]”의 대응비율을 계산하면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0/23*100=0%이고,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을 고려한 경우에는 23/23*100=100%이다.

“降”자에 대한 언해 문헌 중의 상성 독음과 漢語變聲構詞의 原始詞와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표면적인 대응비율은 0%이지만 상거성혼용을 인정하면 100%이다. 언해 문헌 중의 “降[R강]”의 독음과 漢語音變構詞의 原始詞의 음의관계는 규칙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降”자에 대한 언해 문헌 중의 거성 독음과 漢語變聲構詞의 滋生詞와 대응비율은 100%이다. 언해 문헌 중의 “降[L항]”의 독음과 漢語音變構詞의 滋生詞의 음의관계는 규칙적으로 대응한다.

② 壞 [R괴 : H괴 : R회 : R훼]

“壞”자는 古代漢語에서 變聲構詞의 음의관계를 보이고 있다. 『廣韻』에는 “壞”字는 見匣母 異義異讀의 음의관계를 수록하고 있다. 독음이 見母의 古壞切인 경우, “망가뜨리다. 헐어버리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지만, 독음이 匣母의 胡怪切인 경우에, “스스로 깨지다. 저절로 망가지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變聲構詞관계임을 알 수 있다.(古壞切: “毀也.” 胡怪切: “自破也.”)

周祖謨(1946)는 “내가 보기에 ‘壞’자에 두 개의 독음이 있는데 진나라 여침의 『字林』으로부터 시작되었다. 『爾雅·釋詁』에서는 ‘壞자는 ‘망가지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釋文』에는 『字林』 중의 壞자는 ‘스스로 부서지다’라는 의미로, 독음은 ‘下怪反’이다.”라고 하였다. 『禮記·問喪』에서는 ‘마치 담장을 무너뜨리는 듯 했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釋文』에서는 『字林』을 인용하여 ‘壞’자의 독음은 ‘怪’라고 하였는데, 이는 옳은 것이다.(案壞字有二音, 蓋起自晉呂忱『字林』。『爾雅·釋詁』: ‘壞, 毀也。’ 『釋文』云: ‘『字林』, 壞, 自敗也, 下怪反。’ 『禮記·問喪』: ‘如壞墻然’, 『釋文』引『字林』云: ‘壞音怪。’是也。) ”라고 하였다.

周法高(1962)는 “壞”자를 “거성 혹은 탁성모가 사역동사가 되는 경우(去聲或濁聲母爲使謂式)”로 분류하고, “‘壞’: (그것을) 부수다[타동사]’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은 ‘怪(청성모, 거성)’이고, ‘저절로 부서지다’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은 ‘戶怪切(탁성모, 거성)’이다. 『經典釋文·序』에서는 “‘저절로 부서지다[自敗(薄邁反)]’와 ‘그것을 부수다[敗他(補邁反)]’의 차이 및 ‘스스로 망가지다[自壞(呼怪反)]’와

‘망가뜨리다[壞撤(音怪)]’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다.”라고 하였다.(壞：毀之曰壞，音怪(清聲母，去聲)；自毀曰壞，戶怪切(濁聲母，去聲)。案『經典釋文·序』：‘及夫自敗(薄邁反)敗他(補邁反)之殊，自壞(呼怪反)壞撤(音怪)之異。’……)”라고 설명하였다.

조선시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壞”자는 네 가지의 이독음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壞(R괴)-“망가뜨리다. 헐어버리다.”[타동사] (6)

『翻小6/2/b』 今世學不講，男女從幼便驕惰壞了。(이 시절에는 학문을 강론하지 않으므로 남자나 여자나 아이 때부터 교만하며 게을러 어진 성품을 **헐어버린다**.)

『翻小9/7/a』 豈可使小兒輩，私作飲食，壞家法?(어찌 아이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음식을 만들게 하여 집안의 법도를 **무너뜨리는가?**)

『小學5/2/a』 今世學不講，男女從幼便驕惰壞了。(이 시절에는 학문을 강론하지 않으므로 남자나 여자나 아이 때부터 교만하며 게을러 어진 성품을 **헐어버린다**.)

『小學5/101/b』 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넛째는 무릇 사람의 물건을 빌어다가 **헐어버리며** 도로 보내지 아니함이 옳지 않다.)

壞(H괴)-“망가뜨리다. 헐어버리다.”[타동사] (3)

『翻小6/17/a』 壞名災己，辱先喪家，其失尤大者五。(이름을 **헐어버리며** 몸을 해하며, 돌아간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그 허물이 가장 큰 것이 다섯이다.)

『翻小8/22/b』 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넛째는 무릇 사람의 물건을 빌어다가 **헐어버리며** 도로 보내지 아니함이 옳지 않다.)

『孟子6/26/b』 暴君代作，壞宮室以爲汚池，民無所安息。(폭군이 대대로 나타나, 백성의 집을 **헐고** 연못을 파서 백성이 안식할 곳이 없다.)

壞(R회)-“스스로 깨지다. 저절로 망가지다.”[자동사] (3)

『小學5/48/b』 禮俗之壞，習以爲常，悲夫。(예속이 **무너진** 것에 익숙해져 이제 당연한 일로 여기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小學5/116/a』 先有缺壞，就爲補治。(먼저 **헤진** 데가 있거든 즉시 이를 기워 보수한다.)

『論語4/41/a』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군자가 삼 년을 예를 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망가진다**.)

壞(R壞)-“스스로 깨지다. 저절로 망가지다.”(자동사) (1)

『翻小8/38/a』先有缺壞, 就爲補治。(먼저 **헛진** 데가 있거든 즉시 이를 기워 보수한다.)

『翻小6/2/b』와 『小學5/2/a』의 예문에서 “壞”에는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지 않지만, 두 언해본에는 “어진 性(어진 성품)”이라 하여 의미상의 목적어를 실제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여타의 타동사로 해석되는 7개의 “壞”자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성모를 “ㄱ(見母)”로 표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독음이 [R괴] 또는 [H괴]의 見母 聲母인 경우, 상성과 거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타동사의 의미로 해석되는 용례에 쓰였다. 다만 상거성의 두 가지 성조를 혼용하고 있는 이유는 언해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거성혼용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독음이 壞[R회] 또는 壞[R훤]의 “ㅎ(匣母)”로 표시하는 경우는 전부 자동사로 해석되는 용례에 쓰였다. 이는 운모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회]와 [훤]의 두 독음이 서로 비슷하여 표기상의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伊藤 智ゆき(2011: 45-46)는 『翻小』에 수록된 동일한 한자음이 두 개 이상의 독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권(卷)에 따른 한자음의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독자의 “성모·운모의 차이”의 예로 “壞”자를 들고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壞	R괴	『翻小6/2/b』壞了(어딘 성을 히어버려) 『翻小9/7/a』壞家法(가문법을 허러버리느뇨)
	L회	『翻小7/15/b』壞(허러디어)
	R훤	『翻小8/38/a』缺壞(헛여던 디)

“『廣韻』에서는 ‘見母... 毀也, 匣母... 自破也’라고 되어있다. 見母는 ‘ㄱ’, 匣母는 ‘ㅎ’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匣母의 의미에 상당하는 『翻小6/2/b』의 예는 見母에 대응하는 ‘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권-6에 있어

서 이러한 두 가지 한자음의 구별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권-9의 예인 ‘괴’는 見母의 의미에 걸맞으며 『廣韻』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권(卷)에 따른 차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회’와 ‘훼’의 운모 차이는 권(卷)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진호는 위의 내용에 대한 譯者注에서 “『翻小』의 원문에 목적이 ‘어딘 성을’이 있는 것을 보면 『翻小6/2/b』에 나오는 ‘壞’의 의미는 오히려 匣母가 아닌 見母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壞”字의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壞”字의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 비율(%)
		壞[R괴]	壞[H괴]	壞[R회]	壞[R훼]	
原始詞 (見母, 去)	망가뜨리다. 헐어버리다.(타동사)	6	3	-	-	33.3 {100}
滋生詞 (匣母, 去)	스스로 깨지다. 저절로 망가지다.(자동사)	-	-	3	1	25 {100}
대응비율(%)		0{100}	100	0{100}	0{100}	

위의 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언해 문헌 속에 나타난 “壞”자의 네 가지 독음에서 성모를 기준으로 각각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성모가 古代漢語의 見母와 대응하는 두 개의 독음 壞 [R괴], 壞 [H괴]는 “망가뜨리다. 헐어버리다” 등 타동사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였고, 성모가 古代漢語의 匣母와 대응하는 두 개의 독음 壞 [R회], 壞 [R훼]는 “스스로 깨지다”, “저절로 망가지다” 등 자동사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였다. 음의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壞 [R괴]와 壞 [H괴]의 독음은 상거성혼용으로 보아 고대한어 “壞”자의 原始詞의 음의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거성혼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33.3%이던 대응비율은 상거성혼용을 고려하면 대응비율이 100%가 된다. 그리고 壞 [R회]와 壞 [R훼]의 독음 간의 운모의 차이는 실제 음가의 차이라기보다는 표기방법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회]와 [훼]의 독음은 대단히 유사할 뿐더러 당시의 한국한자음은 아직 완벽하게 규범화되어있지 않았

기 때문에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로 볼 수 있다. [회]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느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느냐는 사실 요즘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더구나 [R훤]로 독음을 표시한 용례는 단 한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의관계상 辨義 기능이 존재하는 음운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자유변이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상거성혼용을 고려하지 않을 때 25%이던 대응비율은 상거성혼용을 적용하면 100%가 된다.

(2) 古代漢語 變調構詞와 언해문헌 수록 異讀字 音義關係 규칙대응용례

③ 共 [R공:H공:L공]

“共”자의 음의관계에 대한 상고중국어 이래의 연변상황은 孫玉文(2015)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⁷⁾ 孫玉文(2015)은 “原始詞는 ‘생활 중에 필요한 재물, 자료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공급하다.’라는 의미이다. 동사이다. 독음은 평성의 九容切이다. 滋生詞는 특별히 ‘아랫사람이나 비천한 자가 윗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에게 물품을 봉헌하고 편의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동사이며, 독음은 거성의 居用切이다. 原始詞와 滋生詞의 후기자는 전적으로 “供”자를 사용했지만, 이른 시기에는 대부분 “共”자로 썼다.(原始詞, 義爲把生活中需要的財物, 資料等給需要的人用, 供給, 動詞, 九容切(平聲, *kǐwoŋ/kǐwoŋ)。滋生詞, 特指在下者或卑者給在上者或者尊者奉獻物品, 提供服務, 動詞, 居用切(去聲, *kǐwoŋ/kǐwoŋ『集韻』)。原始詞和滋生詞的後起專用字是“供”, 但是早期多寫作“共”。)”라고 하였다. 또한, “拱2(滋生詞作“恭”)”자에 대하여, “原始詞는 ‘주먹을 모아 쥐다’, ‘손을 모으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독음은 상성의 居悚切이다. 滋生詞는 ‘공경하는 태도로 일하다’라는 의미로 독음은 평성의 九容切이다.(原始詞, 義爲抱拳, 斂手, 動詞, 居悚切(上聲, *kǐwoŋ/kǐwoŋ)。滋生詞, 義爲恭敬地從事某項工作, 動詞, 九容切(平聲, *kǐwoŋ/kǐwoŋ))”라고 하였다. 한편, 『廣韻』에는 “共”字는 平去聲 異義異讀의 음의관계를 수록하고 있다. 독음이 평성

7) 古代漢語 이독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周祖謨(1946), G. B. Dower(1959), 周法高(1962), 孫玉文(2015)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폭의 제한에 따라 연구결과가 가장 완전한 孫玉文(2015)의 연구결과를 주로 인용하였다.

의 九容切인 경우, 주로 지명에 쓰였다. 독음이 거성의 渠用切인 경우에는, “같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이다.(九容切：“共，共城縣，在衛州。”渠用切：“同也，皆也。”) 한편, 『廣韻』의 “供”字는 平去聲 異義異讀의 음의관계를 수록하고 있다. 독음이 평성의 九容切인 경우, “공급하다. 봉헌하다. 구비하다. 설비하다. 주다. 진상하다.”라는 의미이다. 독음이 거성의 居用切인 경우에는 “차리다.”라는 의미이다.(九容切：“供，奉也，具也，設也，給也，進也。”居用切：“供，設也。”)

漢語變調構詞의 관점에서는 “共”자의 原始詞의 의미를 “제공하다.”로 보고, 이 原始詞의 의미로부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봉헌하다.”라는 滋生詞의 의미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拱”자의 原始詞는 “손을 모으다”로 보았고, 滋生詞는 “공경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았다. 變調構詞는 漢語의 상고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음 운서인 『廣韻』에 수록된 異義異讀의 기록과는 상이한 면이 존재한다.

조선시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共”자는 平上去聲 異讀의 분포를 보이는데, 그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共(R공)-“(윗사람을 위해) 장만하다. 제공하다. 봉양하다.”(동사)(3)

『翻小9/89/a』 令子孫勤力其中，足以共衣食。(자손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부지런히 힘써 하면 충분히 옷밥을 **장만할** 수 있다.)

『論語2/63/b』 子路共之，三嗅而作。(자로가 썩을 **잡아 바쳤는데**, 세 번 냄새를 맡고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共(R공)-“같이 하다.”(동사), “같다”(형용사), “같이”(부사)(40)

『眞言47/a』 就中常占御園春，直下共圓菩薩果。(이중에 항상 어원춘을 가졌다 하심은 본래 나고 죽음이 없음을 이르고 바로 내려온다고 운운하는 것은 중생이 본래 성덕이 있어 보살과 묘제를 **같이함**을 이르시도다.)

『翻小7/38/b』 學則連業，遊則共方。(글을 배울 때 함께 배우며, 놀기를 **한** 곳에서 한다.)

『孟子5/4/a』 自天子達於庶人，三代共之。(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삼대가 **공동으로 따른 것이다**.)

共(R공)-“손을 맞잡고 바라보고 절을 하다.”(동사) (1)

『論語1/9/a』 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비유하면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며 여러 별이 손을 맞잡고 따르는 것과 같다.)

共(H공)-“(윗사람을 위해) 장만하다. 제공하다. 봉양하다.”(동사) (1)

『小學1/6/b』 學女事，以共衣服。(여자가 하는 일을 배워서 옷을 장만한다.)

共(H공)-“같이 하다.”(동사), “같다”(형용사), “같이”(부사)(4)

『眞言57/a』 所作諸功德，施一切有情，皆共成佛道。(지은 여러 가지 공덕을 일체 유정에게 주어 다 모두 불도를 이룰지어다.)

『翻小8/29/a』 武人俗吏，所共嗤詆，良由是耳。(무인이나 용숙한 사람이 모두 비웃고 헐뜯는 것이 이로 하여 말미암은 것이다.)

언해자료에 수록된 독음이 상성인 “共[R공]”의 용례는 총44개가 출현한다. 이 용례들 가운데 “(윗사람을 위해) 장만하다. 제공하다. 봉양하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3개이고, “같이 하다”, “같다”, “같이” 등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40개이며, “손을 맞잡고 바라보고 절을 하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1개이다. 한편, 언해문헌에 수록된 독음이 거성인 “共[H공]”의 용례는 총 5개이다. 이 용례들 가운데 “(윗사람을 위해) 장만하다. 제공하다. 봉양하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1개이고, “같이 하다”, “같다”, “같이” 등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4개이다.

언해문헌 중 상거성 독음의 용례들은 의미항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윗사람을 위해) 장만하다. 제공하다. 봉양하다.”의 의미항에 대해서는 상성 “共[R공]”과 거성 “共[H공]”에 모두 출현하는데 古代漢語의 음의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거성 “共[H공]”의 독음이다. 다시 말하면 상성 “共[R공]” 독음으로 표시된 “(윗사람을 위해) 장만하다. 제공하다. 봉양하다.”라는 의미항의 용례 3개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오류라고 하기 보다는 언해문헌 중에 자주 등장하는 “상거성혼용(上去聲混用)”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윗사람을 위해) 장만하다. 제공하다. 봉양하다.”라는 의미항은 상성 “共[R공]”과 거성 “共[H공]” 이외의 다른 독음으로 표

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평성과 입성으로도 표기된 독음이 있다면 “상거성 혼용(上去聲混用)”의 규칙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상성 “共[R공]”과 거성 “共[H공]”의 두 가지 독음표기로만 한정되어있다는 것은 여타의 독음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언해문헌에서 “손을 맞잡고 바라보고 절을 하다.”라는 의미항은 상성 “共[R공]”의 독음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拱”자의 통가자로 볼 수 있고 古代漢語의 음의관계와 일치한다.

共[L공]-“공경하다.”[동사] (8)

『小學2/74/b』 君令而不違，臣共而不二。(임금은 명령하되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신하는 **공손하게** 두 가지로 하지 않는다.)

『孟子9/2/a』 我竭力耕田，共爲子職而已矣。(나는 힘을 다해서 밭을 갈아 **온공히** 자식된 도리를 했을 따름이다.)

共[L공]-“인명. 지명.”[명사] (6)

『小學4/35/b』 衛共姜者，衛世子共伯之妻也。(위나라 **공강(共姜)**은 위나라 세자 **공백(共伯)**의 아내이다.)

『孟子9/10/b』 舜流共工於幽州。(순이 **공공(共工)**을 유주에 유배시켰다.)

언해자료에 수록된 독음이 평성인 共[L공]의 용례는 총 14개이다. 이 용례들 가운데 “공경하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8개인데, 이는 “恭”자의 통가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명. 지명.”에 쓰인 용례는 6개이다. 이 용례들은 古代漢語의 음의관계와 일치한다.

“共”자의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共”字의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비율(%)
		共[R공]	共[H공]	共[L공]	
原始詞(平)	장만하다. 제공하다.(동사)	-	-	-	-
原始詞(平)	지명. 인명.(명사)	-	-	6	100
통가자(平)	(=恭) 공경하다.(동사)	-	-	8	관련없음
통가자(上)	(=拱) 손을 맞잡고 절하다.(동사)	1	-	-	관련없음

滋生詞(去)	윗사람에게 공물을 바치다. (동사)	3	1	-	25 ⁸⁾ {100}
滋生詞의 인신의(去)	같이하다.(동사) 같다.(형용 사) 함께.(부사)	40	4	-	9.09{100}
대응비율(%)		0{100}	0{100}	100	

“共”자에 대한 언해 문헌 중 “共(L공)” 독음과 漢語變調構詞의 原始詞와 대응관계는 용례가 없다. 하지만 지명과 인명으로 쓰인 原始詞와의 대응비율은 100%이다. 따라서 언해 문헌 중의 언해 문헌 속 “共(L공)” 독음과 漢語變調構詞의 原始詞와 음의관계는 규칙적으로 대응한다.

“共(R공)”와 “共(H공)”의 독음과 漢語變調構詞의 滋生詞의 음의관계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상거성혼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윗사람을 공경하다”라는 의미항의 경우 25%이고, “같이하다. 같다. 함께”라는 의미항의 경우 9.09%의 대응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상거성혼용을 인정하면, 두 종류의 의미항의 대응비율은 모두 100%가 된다. 따라서 언해 문헌 중의 언해 문헌 속 “共(R공)” 및 “共(H공)” 독음과 漢語變調構詞의 滋生詞와 음의관계는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斷[R단] : 段[R단 : H단]

“斷”자의 음의관계에 대한 상고중국어 이래의 연변상황에 대해서 孫玉文(2015)은 “原始詞는 ‘도끼로 찍어내다. 절단하다. 가위로 잘라내다. 톱으로 잘라내다.’ 등의 의미이다. 동사이며, 독음은 상성의 都管切이다. 滋生詞는 특정하여 ‘요구에 따라 농단하다’라는 의미를 가리키며, 동사이다. 이 의미로부터 ‘결정하다.

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共”자의 다양한 이독자는 漢語의 다양한 층위를 반영하고 있다. 독음이 평성(九容切)인 경우, 상고음을 반영하고 있는 變調構詞에서는 “장만하다. 제공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중고음 운서인 『廣韻』에서는 평성(九容切)과 거성(居用切)의 독음을 불문하고 모두 “장만하다. 제공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共”자의 고대한어와 韓漢音을 비교한 위의 통계에서 언해 문헌에서 “장만하다. 제공하다”의 의미로 쓰인 “共”자는 상성으로 기록된 용례 3개와 거성으로 기록된 용례 1개가 보이는 반면, 평성으로 기록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하면 언해 문헌에 반영된 “共”자는 주로 漢語 중고음의 음의 관계와 유사하며, 따라 漢語의 중고음 층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단하다. 단정하다.'라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동사이며, 독음은 거성의 丁貫切이다. (原始詞, 義爲砍斷, 截斷, 剪斷, 鋸斷, 動詞, 都管切(上聲, *tuan/tuan)。滋生詞, 特指按要要求弄斷, 動詞; 引申爲決定, 決斷, 斷定, 動詞, 丁貫切(去聲, *tuan/tuan)。"라고 설명하였다.

“斷3(滋生詞後作“段”)”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孫玉文(2015)은 “原始詞는 ‘이미 끊어내다. 이미 도끼로 찍어내다. 이미 절단하다. 이미 가위로 잘라내다. 이미 톱으로 잘라내다.’ 등의 의미이다. 동사이며, 독음은 상성의 徒管切이다. 滋生詞는 ‘사물이 잘리고 나서 형성된 일부분’이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독음은 거성의 徒玩切이다. (原始詞, 義爲已經弄斷了, 砍斷了, 截斷了, 剪斷了, 鋸斷了, 動詞, 徒管切(上聲, *duan/duan)。滋生詞, 義爲東西弄斷以後所形成的若干部分, 名詞, 徒玩切(去聲, *duan/duan)。”라고 하였다.

이처럼 古代漢語에서 “斷”자와 “段”자의 상거성 변조구사의 음의관계는 구분이 명확하다. 조선시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斷”자와 “段”자는 上去聲 異讀의 분포를 보이는데, 그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斷(R단)-“자르다. 절단하다.”[동사], “단절. 절단.”[명사] (9)

『六祖上/28/a』汝 | 爲第六代祖 | 리니 善自護念^ㅎ야 廣度有情^ㅎ야 流布將來^ㅎ야 無^ㅎ斷^ㅎ絶^ㅎ케 ^ㅎ라. (네가 제육대 조사가 될 것이니, 네 스스로가 잘 호념하여 유정을 널리 제도해서 잘래에 유포하고 그치지 않게 하여라.)

『六祖中/88/a』汝是釋子 | 어시니 何習外道の 斷常邪見^ㅎ야 而議最上乘法^ㅎ는다. (네가 석가의 제자이니 어째서 외도(外道)의 단(斷)⁹⁾과 상(常)의 사견을 배워 최상승법을 의논하느냐?)

『六祖下/22/b』汝 | 今에 依言^ㅎ고 背義^ㅎ야 以斷滅無常^ㅎ과 及確定死常^ㅎ으로 而錯解佛之圓妙^ㅎ신 最後微言^ㅎ느니. (네가 이제 말씀만을 의지하고, 의를 배반하여 단멸 무상과 또 굳게 정한 사상으로 부처님의 원묘하신 맨 나중의 미묘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나니)

『六祖下/87/b』如何處斷? (어찌 처단하리오?)

『三壇32/b』煩惱無盡誓願斷. (번뇌가 다함이 없거늘 그치리라 서원하였다.)

9) 김무봉 譯著, 『역주육조법보단경언해·중권』,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p.138. 단(斷): 1. 악을 끊는 것. 단혹(斷惑). 2. (존재나 연속이) 끊어지는 것.

『翻小6/61/b』 令女於是竊入寢室, 以刀斷鼻, 蒙被而臥. (이에 영녀는 몰래 침실로 들어가 칼로 코를 자르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었다.)

斷(R단)-“결단하다. 결정하다.”[동사](4)

『六祖中/80/b』 學人이 비록 이 니르샤물 듣조나 오히려 決斷하야 아디 문하야이다.(학인이 비록 이 이르심을 들으나 오히려 결단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翻小6/34/b』 臨事, 以明敏果斷, 辯是非. (일을 함에 있어 밝고 빠르게 하며 결단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가릴 것이다..)

『孟子4/27/b』 獨於富貴之中, 有私龍斷焉. (홀로 부귀의 중심에서 사사로이 독차지하고 농단하고 있다.)

『孟子4/28/a』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천박한 사나이가 나타나 반드시 농단을 구하여¹⁰⁾ 올라갔다.)

段(R단)-“잘려나간 한 부분. 마디.”[명사](2)

『翻小8/2/a』 終身讓畔, 不失一段. (밭 경계를 양보함에 있어, 다른 이가 한 끝도 잃음이 없게 하라.)

段(R단)-“인명”[명사](1)

『孟子6/21/b』 段干木踰垣而辟之. (단간목은 담을 넘어 피하였다.)

段(H단)-“조각”[명사](1)

『類合下48/a』 擘各 단

段(H단)-“비단(=緞)”[명사](2)

『字會(東中)上/10/b』 비단 단.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상성인 斷(R단)의 용례는 13개이다. 古代漢語의 “斷1”의 원시사가 언해 문헌 중의 斷(R단)과 대응하는 용례는 9개이다. 이 가운데 『六祖』에서는 “斷”자를 명사화하여 “단멸”이라는 의미의 불교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고대한어 원시사에서 유래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古代漢語의 “斷

10) 장세경 譯著, 『역주맹자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p.230. 용단(龍斷): 언덕 마루턱을 차지하고 주위를 차단하고 홀로 높이 선다.

1”의 자생사가 언해 문헌 중의 斷[R단]과 대응하는 용례는 4개이다. 언뜻 보듯이 상황을 불규칙대응으로 볼 수 있으나, 주의해야 할 것은 언해 문헌 중에는 거성의 斷[H단]의 독음이 사용된 용례가 없다는 것이다. [H단]의 독음에는 전문적으로 “段”자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古代漢語의 “斷1”의 자생사와 언해 문헌의 斷[R단]과 대응하는 용례는 “상거성혼용”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古代漢語의 “斷1”의 원시사와 자생사는 언해문헌에서 “상거성혼용” 규칙에 의해 모두 斷[R단]로만 표시되었다. “상거성혼용”으로 인해 성조의 변별은 없어졌으나, 의미의 변별은 언해의 원문해석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각 용례에 대한 정리 분석을 바탕으로 古代漢語와 언해 문헌 속에 수록된 “斷”자와 “段”자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수량비교표를 정리하였다.

“斷”“段”字의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斷”, “段”字의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비율(%)
		斷[R단]	段[R단]	段[H단]	
“斷1”原始詞 (端母, 上)	자르다. 절단하다.(동사). 단절. 절단.(명사)	9	-	-	100
“斷1”滋生詞 (端母, 去)	결단하다. 결정하다.(동사)	4	-	-	0{100}11)
“斷3”滋生詞 [段](定母, 去)	잘려나간 한 부분. 조각.(명사)	-	2	1	33.3{100}
	인명(고유명사)	-	1	-	0{100}
“段”의 통가자	(=緞)비단(명사)	-	-	2	100
대응비율(%)		30.8{100}	0{100}	100	

“斷1”에 대한 언해 문헌 중의 상성 독음과 漢語變聲構詞의 原始詞와의 대응비율은 100%이다. “斷1”의 상성 독음과 漢語變聲構詞의 滋生詞와의 표면적인 대응비율은 0%이지만, “상거성혼용”을 인정하면 100%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우 언해 문헌에서 “斷”의 거성 독음이 출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언해

11) {}: 이 괄호 속의 숫자는 古代漢語의 上去聲 變調構詞에 상응하는 韓漢音 異讀字가 上去聲 混用으로 인하여 음의관계와 관계없이 上聲이나 去聲 중 어느 하나의 성조로 표시된 용례의 개수이다.

문헌의 韓漢音에서는 음의상의 상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한어에서 “段”은 漢語音變構詞로서 “斷3”의 자생사이다. 언해 문헌 중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상성으로 기록된 용례가 2개 있다. 하지만 이미 “段”이라는 문자상의 변별을 갖춘 상황이므로 “상거성혼용”을 적용해도 음의관계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⑤ 巧 [R교 : H교]

“巧”자의 음의관계에 대한 상고중국어 이래의 연변상황은 孫玉文(2015)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¹²⁾ 孫玉文(2015)은 “原始詞는 ‘기교’, ‘기술’이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다. 사의구사를 통해 ‘고명하다’, ‘숨씨가 좋다’, ‘교묘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으며, 형용사이다. 독음은 상성의 苦絞切이다. 滋生詞는 ‘성실하지 못하다’, ‘거짓으로 꾸미다’, ‘교묘하게 속이다’라는 의미이고, 형용사이며, 독음은 거성의 古訝切이다.(原始詞, 義爲技巧, 技術, 名詞; 詞義構詞, 義爲高明, 靈巧, 神妙, 形容詞, 苦絞切(上聲, *k'əu/k'au)。滋生詞, 特指虛浮不實, 詐偽, 巧詐, 偽巧, 形容詞, 苦教切(去聲, *k'əu/k'au)。”라고 하였다. 이처럼 古代漢語에서 “巧”자의 上去聲 變調構詞의 음의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조선 시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巧”자의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巧(R교)-“기교, 기술”(명사), “숨씨가 좋다, 교묘하다”(형용사)(6)
 『翻小10/15/a』 玉工貨一釵, 奇巧。(옥공이 비녀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모양이 아주 정교합니다.)
 『論語1/21/b』 巧笑倩兮, 美目盼兮。(곱게 웃는 품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로 바라보네.)
 『孟子7/1/a』 離婁之明, 公輸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圓。(이루의 눈 밝음과 공수자의 정교함에도 그림쇠나 곱자를 쓰지 않으면 능히 사각형과 원을 만들지 못한다.)

12) 古代漢語 이독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周祖謨(1946), G. B. Dower(1959), 周法高(1962), 孫玉文(2015)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폭의 제한에 따라 연구결과가 가장 완전한 孫玉文(2015)의 연구결과를 주로 인용하였다.

巧[R교]-“성실하지 못하다. 거짓으로 꾸미다.”[형용사](4)

『論語1/2/a』 巧言令色, 鮮矣仁。(말을 거짓으로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드물다.)

『孟子13/4/b』 爲機變之巧者, 無所用恥焉。(임기응변으로 간교함을 부리는 사람은 수치심을 쓸 데가 없다.)

巧[H교]-“성실하지 못하다. 거짓으로 꾸미다.”[형용사](1)

『論語4/39/b』 巧笑倩兮, 美目盼兮。(곱게 웃는 품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로 바라보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상성의 巧[R교]인 용례는 10개이다. 古代漢語의 “巧”의 원시사와 언해 문헌 속의 巧[R교]가 대응하는 용례는 6개이다. 이 용례들은 규칙 대응에 해당된다. 하지만 언해 문헌 중의 巧[R교]가 古代漢語의 “巧”의 자생사와 대응하는 용례는 4개이다. 음의관계상 불규칙대응이다. 다만 언해 문헌에서 상성 [R교]의 독음과 거성 [H교]의 독음 이외에 다른 성조로 표기된 독음은 없고, 이는 여타의 독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해 문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거성혼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거성의 巧[H교]인 용례는 1개이다. 이 용례는 古代漢語의 “巧”의 자생사와 규칙 대응한다.

“巧”字的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巧”字的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비율(%)
		巧[R교]	巧[H교]	
原始詞(上)	기교(명사), 솜씨가 좋다(형용사)	6	-	100
滋生詞(去)	거짓으로 꾸미다(동사)	4	1	20{100}
대응비율(%)		60{100}	100	

위의 표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언해 문헌 중 “巧”자의 상성 독음 巧[R교]와 漢語變聲構詞의 原始詞와 대응관계는 규칙대응이다. 언해 문헌 중 “巧”자의 거성 독음 巧[H교]와 漢語變聲構詞의 滋生詞와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대응비율은 20%이지만 “상거성혼용”의 관점에서 보면 대응비율은 100%가 된다. 언해 문헌 중 상

성 독음 巧[R교]을 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로 불규칙대응이 되어 대응비율은 60%이지만, “상거성혼용”을 적용하면 대응비율은 100%가 된다. 언해 문헌 중 “巧”자는 상성 독음 巧[R교]와 “巧”자의 거성 독음 巧[H교] 등 상거성독음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상보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엄격하게 고대한어의 음의관계를 준수하지는 않고, 당시 한국한자음의 음운적 특성인 “상거성혼용”을 수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상거성혼용”의 규칙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대응비율상의 불완정성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⑥ 當 [L당 : R당 : H당]

“當”자의 음의관계에 대한 상고중국어 이래의 연변상황은 孫玉文(2015)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孫玉文(2015)은 “原始詞는 ‘두개씩 서로 상당하다. 상응하다. 대응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독음은 평성의 都郎切이다. 滋生詞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 주동적으로 적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또는 ‘적합하다, 어울리다, 타당하다(사건과 이치가 상응하다)’ 등의 의미로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사이다. 독음은 거성의 丁浪切이다.(原始詞, 義爲兩兩相當, 動詞, 都郎切(平聲, *taŋ/taŋ)。滋生詞, 義爲一方主動適應另一方, 動詞; 合適, 合宜, 妥當(事與理相當)含褒義, 動詞, 丁浪切(去聲, *taŋ/taŋ)。”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에서는 또한 상고한어에서 “當”의 원시의 “兩兩相當”라는 의미는 “대응하다(對應)”, “저지하다(抵擋)”, “결맞다(對當), 대등하다(對等)”, “필적하다(匹敵)”, “직접 대면하다(面對着)”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다시 “반드시(응당) ~ 해야 한다. ~ 하는 것이 마땅하다(應當)”의 조동사의 의미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으로 간주하다(當作)”, “주관하다(主持)”의 의미로 인신(引申)하였다. “當”의 滋生詞는 “적당하다. 적합하다. 타당하다.(合宜. 合適. 妥當)”라는 의미의 음의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古代漢語에서 “當”자의 平去聲 變調構詞의 음의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當”자의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當[L당]-“상당하다. 상응하다. 해당하다.”[동사](9)

『小學1/2/a』躡當作跋。(“躡”자는 “跋”자에 **해당한다.**)

『孟子8/8/a』養生者，不足以當大事。(「부모가」 생존했을 때. 봉양하는 것이 죽히 중대한 일이라 **하기엔 부족하고[대스에 當당티 못하고]**)

『孟子8/10/a』言無實不祥，不祥之實，蔽賢者當之。(말이 진실로 상서롭지 않음이 없으니, 상서롭지 않은 진실은 어둠을 은폐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때 道도에 當당하느니라]**.)¹³⁾

『孟子12/27/a』君子之事君也，務引其君以當道，志於仁而已。(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힘을 써서 그 임금을 인도하여 **마땅히 도를 행하게 하고[때 道도에 當당하야]**¹⁴⁾ 인에 뜻을 둘 따름이다.)

當[L당]-“(어떤 상황에) 당면하다. 맞닥뜨리다.”[동사](13)

『孝經23/b』故當不義，則子不可以不爭。(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는[옳지 아니한 데 當당하어서는]** 아들이 피가히 아버지께 다투지 않지 못할 것이다.)

『孝經23/b』故當不義，則爭之。(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옳지 아니한 데 當당하면]** 다툰다.)

13) 장세경譯著, 『역주맹자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p133. “폐현자당지(蔽賢者當之): 어진 사람을 숨기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니 그러한 자는 **마땅히 그렇게 하고도 낯는다.** 말에는 심오한 뜻이 있게 마련이지만 상서로움이 없는 말은 그 말이 상서롭지 않음이 아니라 현명함을 가리고 가로막는 자가 있어 **마땅히 그러하다.**” “當당하느니라”의 의미를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當”자를 조동사의 “마땅히 ~ 해야 한다”로 생각하면 다음의 나오는 “之”가 동사로서 “그러하다”의 의미가 되어야하는데 해석이 부자연스럽다. 趙岐注에서는 “무릇 말씀에는 모두 진실됨이 있어야하니, 효자의 진실됨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선함의 진실됨은 어둠과 의로움이다. “祥”이란 “선하다(善)”라는 의미이다. “當”이란 “직면하다(直)”라는 의미이다. 선하지 않은 진실됨은 어떤 것인가? 어둠을 은폐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진실과 직면한다. (凡言皆有實，孝子之實，養親是也。善之實，仁義是也。祥，善。當，直也。不善之實何等也，蔽賢者之人直於不善之實也。)”라고 하였다. 즉, “當”을 “직면하다”라는 의미로 보았다. 이 경우 “當”을 동사로 보고 “之”가 대명사 목적으로 보면 “그것에 직면한다”, “그것과 마주한다”의 의미가 되어 해석이 자연스럽다.

14) 『맹자언해』에서는 “君군子자의 군군을 사스하음은 그 군군을引人하야 때 道도에 當당하야 仁인에 志지할 뜻이니라.”라고 직역하였다. 반면, 『역주맹자언해』(장세경 譯著,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p.133.)에서는 “무인기군이당도(務引其君以當道): 자기 임금을 잘 인도하여 마땅히 도를 행하게 힘써야 한다.”라고 의역하였다. 趙岐注에서는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방법은 그 임금을 이끌어 올바른 길에 맞닥뜨리는 것이 어진 것이다.(言君子事君之法牽引其君以當正道者仁也。)”라고 하였다. 朱熹集注에서는 “當道란 이치에 맞게 섬기는 것을 일컫는다(謂事合於理。當道，謂事合於理。)”라고 하였다.

當舖-[어떤 시점, 시대 또는 장소에] 당다. 이르다.”[동사](34)
 『六祖上/56/a』 一日思惟, 時當舖弘法, 不可終遯。(하루는 생각하되 ‘법을 넓힐 **때가 당도하여**[當舖디라] 마침내 숨어 지내지 못하겠구나.’)
 『眞言52/a』 成道當舖初牧女先來送。(성도하신 **처음을 당해서**[처서를當舖호야] 목축하는 여자가 먼저 보내온 것이다.)
 『翻小9/54/b』 其夫當舖行戍, 且行時, 屬孝婦曰, 我生死未可知。(그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어 길을 나섰을 **때에**[길을 나갈 제] 효부에게 부탁하여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孟子5/22/a』 當舖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요의 **때를 당하여** 천하가 오히려 편하지 못하여 홍수가 넘쳐흘렀다.)

當舖-[당하다. 직면하다.] + “(물건을) 놓아두다.”[동사] (2)
 『翻小8/17/b』 凡此十四者, 我皆未深省, 書此當舖坐隅, 朝夕視爲警。(무릇 열네 가지를 내가 다 깊이 살피지 못한다. **이를 내가 당하여** 앉는 **곁에 두고**[이를 내 당호야 안는 겨티서 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아 경계하라.)
 『小學5/97/a』 凡此十四者, 我皆未深省, 書此當舖坐隅, 朝夕視爲警。(무릇 열네 가지를 내가 다 깊이 살피지 못한다. **이것을 써서** 앉는 **자리의 머리에 두고**[이를 써 안는 모해當舖호야] 아침저녁으로 보아서 경계로 삼는다.)

이 예문은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 모두 실려있다. 『翻小8/17/b』에서는 “當舖”을 “당하다”라는 의미와 “놓아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중복시켰다. 반면 『小學5/97/a』에서는 “놓아두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했다.

當舖-[직무를] 맡다. 베풀하다. 담당하다.”[동사](11)
 『翻小10/21/a』 爲之自我者當舖如是。(그 일을 함에 있어 나로부터 할 일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孟子10/32/a』 孔子當舖仕有官職。(공자는 **베풀하여**[仕스의當舖호야] 관직에 계셨다.)

當舖-[감당하다. 지탱하다.”[동사](2)
 『翻小9/58/a』 少君生富驕, 習美飾, 而吾實貧賤, 不當舖禮。(소군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배웠으나, 나는 참으로 가난

하고 미천하여 그와 같은 예를 **감당할 수 없다**[지당티¹⁵⁾ 못허리로다.]
 『小學5/10/a』 語及顏孟，則不**敢當**也(다른 사람들이 안자나 맹자에 대해 언급하면 **감당할 수 없어**[**敢감히** **當당티** 못허야])

當[L당]-“마땅히 ~ 해야한다.”[조동사](44)

『翻小6/4/b』 當以先入之言爲主。(모름지기[모로매¹⁶⁾] 앞서 든 어진 말로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小學5/50/b』 若有疾，暫須食飲，疾止，亦當復初。(만일 병이 있거든 잠깐 먹으며 마실 수 있지만, 병이 그치거든 또 **마땅히** 처음의 도로 **할 것 이라**[**맛당이** **처음의 도로** **홀디니라**]¹⁷⁾)

『三壇45/a』 見心無所生，當獲大名稱。(마음에 날 바 없음을 보아 **마땅히**[**당다이**]¹⁸⁾ 큰 이름 일컬음을 얻으리라.)

『孟子13/37/b』 知者無不知也，當¹⁹⁾務之爲急(지혜로운 사람이 모르는 것이 없으나 **마땅히** 힘을 것을 급하게 하고[**맛당이** **務무** **홀겨** **을** **급급을** **삼고**].)

當[L당]-“(응당) ~ 할 것이다.[추측]”[조동사](10)

『翻小7/17/b』 若有疾，暫須食飲，疾止，亦當復初。(만약 병이 있거든 잠깐 먹고 병이 좋아지거든 또 **그칠 것이다**[**마들디니라**]²⁰⁾.)

- 15) 지당하다 : [동사] [옛말] 지탱하거나 감당하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16) 모로매 : [부사] [옛말] '모름지기(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의 옛말.(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17) 이 용례에서 언해본의 해석은 “맛당이(마땅히)~홀디니라(할 것이다)”라고 하여 “의무”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물론 “홀디니라(할 것이다)”라는 표현에는 “추측”의 의미를 동반하고 있기는 하다. 반면에 동일한 예문을 수록한 『翻小7/17/b』의 언해본 해석에서는 “(응당) ~ 할 것이다”라고 하여 “추측”의 의미를 강조하여 해석하였다.
- 18) 김정수譯著, 『역주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8, p.157. 당다이: 당당히, 마땅히, 당연히
- 19) 언해본에서는 “마땅히 ~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焦循은 『孟子正義』에서 “맹자가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많이 알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일에 직면해서는 신속히 할 뿐 이라고 말한 것이다. (孟子言爲之智者，以其多知，故無所有而不知者也，然而但當要務爲急耳。)”라고 하였다. 즉, 『孟子正義』에서는 “當”자를 “직면하다” 또는 “(직무를) 담당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 20) 울디니라 : [어미] [옛말]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ㄹ 것이니라.(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참고로 동일한 예문에 대해서 『小學5/50/b』에서는 “마땅히 ~ 할 것이다(의무)”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翻小7/44/b』君臣朋友, 皆當以敬爲主。(임금과 신하와 벗과 다 공경 함으로 으뜸을 삼을 것이다.)

當(R당)-“적당하다. 타당하다. 마땅하다.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형용사)(2)
『翻小8/13/b』氣象好時, 百事是當。(기상이 좋을 때는 일백 가지 일 이 다 마땅하다(맞당ㅎ느니).)
『小學5/53/b』父母之喪, 不當出。(부모의 상중에는 마땅히 밖에 나가 지 말아야 한다(맞당히 나가디 아니홀디니).)

언해본에 수록된 상성표기의 “當”자는 “마땅하다”, “마땅히 ~ 하다”라고 번역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무, 당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상의 의미를 생각하면 위의 두 용례에서 “當”자는 형용사인 “적당하다. 적절하다.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언해본에서 평성으로 독음을 표시하지 않고, 상성으로 독음을 표시한 것도 바로 음의관계를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였던 것 같다.

當(R당)-“당시. 즉시”²¹⁾(명사)(2)
『翻小6/24/b』忿怒容易生, 風波當時起。(분노하고 원망함은 쉽게 생겨 바람에 이는 물과 같아서 즉시에 일어난다.)

當(H당)-“맞닿다. 부딪히다.”(동사)(1)
『翻小10/22/a』其榻上當膝處皆穿。(그 평상에 무릎이 닿았던 곳이 다 뚫어졌더라.)

當(H당)-“적당하다. 타당하다. 마땅하다.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형용사)(1)
『孟子10/21/b』孔子嘗爲委吏矣, 曰: 會計當而已矣。(공자가 일찍이 위리가 되서어 말씀하기를, ‘회계를 마땅하게(정당하게) 할(當당히 할) 따

21) 孫玉文(2015: 670)에서는 두보시를 예로 들어 “當時”라는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當時’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當時’의 ‘當’자를 거성으로 읽으면 때마침 적절한 때를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고, 평성으로 읽으면 어떤 시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 (‘當時’是一個歧義結構。……‘當時’의‘當’讀去聲, 強調適逢其時; 讀平聲, 強調正當某個時候。)”라고 설명하였다.

름입니다.)

當(H당)-“가당하다. 대체로 보아 이치에 맞다.”(형용사)(1)
 『孟子3/4/a』曰文王何可當也?(맹자가 말씀하시길 문왕이 어찌 가히
당하시리오[가당하시리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평성의 [L당]인 용례는 125개이다. 古代漢語의 “當”의 원시사와 언해 문헌 속의 當(L당)이 상응하는 용례는 124개이다. 이 용례들은 규칙대응에 해당된다. 동사로 “맞닿다. 부딪히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예외적으로 거성 [H당]으로 주음하였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거성의 [H당]인 용례는 4개이다. 古代漢語의 “當”의 자생사와 언해 문헌 속의 當(H당)이 상응하는 용례는 3개이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상성의 [R당]인 용례는 4개이다. 이 용례는 모두 古代漢語의 “當”의 자생사에 상응한다. 각 용례에 대한 정리 분석을 바탕으로 古代漢語와 언해 문헌 속에 수록된 “當”자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수량비교표를 정리하였다.

“當”字의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當”字의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 비율(%)
		當[L당]	當[R당]	當[H당]	
原始詞(平)	“상당하다. 상응하다. 해당하다.”(동사)	9	-	-	100
	“(어떤 상황에) 당면하다. 맞닥뜨리다.”(동사)	13	-	-	100
	“(어떤 시절, 시대 또는 장소에) 닿다. 이른다.”(동사)	34	-	-	100
	“당하다. 직면하다.”+(물건을) 놓아두다.”(동사)	2	-	-	100
	“맞닿다. 부딪히다.”(동사)	-	-	1	0
	“(직무를) 맡다. 베풀하다. 담당하다.”(동사)	11	-	-	100
	“감당하다. 지탱하다.”(동사)	2	-	-	100
	“마땅히 ~ 해야한다.[의무]”(조동사)	44	-	-	100
	“(응당) ~할 것이다.[추측]”(조동사)	10	-	-	100
滋生詞(去)	“적당하다. 타당하다. 마땅하다.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형용사)	-	2	1	33.3 (100)

	“가당하다. 대체로 보아 이치에 맞다.”(형용사)	-	-	1	100
	“당시. 즉시”(명사)	-	2	1	33.3 {100}
대응비율(%)		100	100{0}	75	

위의 표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언해 문헌 중 “當”자의 평성 독음 [L당]과 漢語變聲構詞의 原始詞와 대응관계는 하나의 용례를 제외하고 규칙대응이다. 언해 문헌 중 “當”자의 거성 독음 [H당] 및 상성 독음 [R당]과 漢語變聲構詞의 滋生詞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형용사로 “적당하다. 타당하다. 마땅하다.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의 의미를 가진 용례와, [H당]의 의미를 가진 용례와 명사로 “당시. 즉시”의 의미를 가진 용례는 상성과 거성에 모두 2:1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용례들의 의미가 漢語變聲構詞의 滋生詞의 의미와 일치하므로, 이러한 용례들에 대해서 “상거성혼용”을 적용하면 대응비율은 100%가 된다. 이밖에 형용사로 “가당하다. 대체로 보아 이치에 맞다.”라는 의미로 쓰인 용례는 하나이고 “當”자의 漢語變聲構詞의 滋生詞의 음의관계와 일치한다.

2) 古代漢語 音變構詞와 언해문헌 수록 異讀字 音義關係 불규칙대응

⑦ 究 [H구:R구]

“究”자의 음의관계에 대한 상고중국어 이래의 연변상황은 孫玉文(2015)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孫玉文(2015)은 “原始詞는 ‘숫자’, ‘8에 1을 더한 합’이라는 의미이며, 넓게는 ‘많은 숫자’를 가리킨다. 數詞이며, 독음은 상성의 舉有切이다. 滋生詞는 ‘궁구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독음은 거성의 居祐切이다. (原始詞, 義爲數目字, 八加一的和, 泛指多數, 數詞, 舉有切(上聲, *kǐəu/kǐəu). 滋生詞, 義爲窮究, 動詞, 字作“究”, 居祐切(去聲, *kǐəu/kǐəu).”라고 하였다. 이처럼 古代漢語에서 “究”자의 상거성 변조구사의 음의관계는 구분이 되지만, 고대한어에서 “究”자는 原始詞 “九”자에서 파생된 滋生詞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기 언해자료에 수록된 “究”자는 상거성 이독자로 분포를 보이

는데, 그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究(H구)-“궁구하다”(동사), “궁구”(명사)(4)

『六祖下/10/b』五蘊은 幻身이어나 幻何究竟이리오. (오온은 거짓 몸이니 거짓 것이 어찌 궁경이리오.)

『六祖下/31/b』朕은 請安秀二師하야 宮中에 供養 하고 萬機之暇에 每究一乘하노니 (짐은 해안과 신수의 두 대사를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하고 만기의 여가에 언제나 일승을 궁구하였는데.)

『小學5/115/b』惟讀書, 尋思推究者, 爲可畏耳. (오직 글을 읽을 때 찾아 생각하여 궁구하는 자만이 두렵다.)

究(R구)-“궁구하다”(동사), “궁구”(명사)(1)

『翻小8/37/b』惟讀書, 尋思推究者, 爲可畏耳. (오직 글을 읽을 때 찾아 생각하여 궁구하는 자만이 두렵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거성의 [H구]인 용례는 4개이다. 이 용례들은 古代漢語 중 “究”의 자생사에 상응한다. 언해 문헌에서 독음이 상성의 [R구]인 용례는 1개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1개의 용례는 동일한 내용의 문장이며,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각각 상성과 거성으로 주음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예외이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본에서 저자마다 주음방식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상거성혼용”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古代漢語와 언해 문헌 속에 수록된 “當”자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수량비교표를 정리하였다.

“究”字의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究”字의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비율(%)
		究(H구)	究(R구)	
原始詞(上)	숫자 아홉 “九”(수사)	-	-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과 관련없음
滋生詞(去)	궁구하다.(동사)	4	1	80{100}
대응비율(%)		100	0{100}	

언해 문헌 중의 “究”자의 상성 독음 [R구]이 漢語變聲構詞의 原始詞에 대응하는 용례는 출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究”자가 “九”자로 가차되어 사용되었던 상고한어 중의 특수한 용례로 언해 문헌에서 이러한 특수한 용례를 수록한 문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언해 문헌 중 거성 독음 [H구] 및 상성 독음 [R구]와 漢語變聲構詞의 滋生詞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대응비율이 80%이지만 “상거성혼용”을 적용하면 100%이다. 다만 “究”자는 언해 문헌에 수록된 용례가 적고 원시사의 용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불규칙대응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⑧ 蹶[H꺄:R꺄]

“蹶”자의 음의관계에 대한 상고중국어 이래의 연변상황은 孫玉文(2015)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孫玉文(2015)은 “原始詞는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동사이며, 독음은 短入의 居月切이다. 滋生詞는 ‘움직이다’, ‘동요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독음은 長入의 居衛切이다.(原始詞, 義爲跌倒, 動詞, 居月切(短入, *kīwät/kīwet). 滋生詞, 義爲動, 動搖, 動詞, 居衛切(長入, *kīwät/kīwet).)”라고 하였다. 이처럼 古代漢語에서 변조구사인 “蹶”자의 음의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廣韻』에도 세 개의 이독음이 수록되어있다. 독음이 “居月切”인 경우, “‘실족하다. 뛰어가다. 빠르게 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이다. 『說文解字』에서는 ‘몸이 굳다’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뛰다’라는 의미”라고 했다. 독음이 “紀劣切”인 경우, “‘재앙을 무릅쓰다’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독음이 “居衛切”인 경우, “급히 걸어가는 모양”이라고 하였다.²²⁾ 조선시기 언해문헌에 수록된 “蹶”자의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蹶(H꺄)-“빠르게 달아나다.”[동사](2)

『小學2/59/b』 兩手摳衣, 去齊尺, 衣毋撥, 足毋蹶。(두 손으로 옷을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居月切：“蹶, 失腳, 又走也, 速也, 嘉也, 『說文』曰：‘僵也。一曰：跳也。’” 紀劣切：“蹶, 有所犯災。” 居衛切：“蹶, 行急兒。”

들어올려 옷자락이 땅에서 한 자쯤 떨어지게 해야 하며, 옷자락을 펼럭이지 말아야 하며, 발을 다급하게 옮겨 놓아서도 안 된다.)

蹶(R꺠)-“넘어지다.”[동사](1)

『孟子3/13/a』 今夫蹶者趨者, 是氣也而反動其心。(이제 넘어질 듯 하면서 앞으로 달아나는 것이 ‘기’인데 도리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蹶(R꺠)-“움직이다. 동요하다.”[동사](1)

『孟子7/5/a』 詩曰：天之方蹶, 無然泄泄。(시경에서는 ‘하늘이 바야흐로 뒤엎으려 하니【天천이 보야흐로 蹶꺠 히시느니】 것처럼 떠들기만 하지 말라.’하였다.)

『經典釋文』에서는 “蹶자는 독음이 ‘俱衛反(거성)’이고, ‘움직이다’라는 의미이다.(方蹶, 俱衛反, 動也.)”라고 하였으므로 『孟子』 속의 이 문구는 “움직이다. 동요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장세경(2013: 66)의 『譯註孟子諺解』에서 “뒤엎으려 하니”라고 번역한 것은 의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孫玉文(2015: 1293)에서는 『經典釋文』에서는 전적으로 ‘蹶(蹶)자에 ‘居月切’로 注音한 예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이독자에 注音한 상황을 보고 분석해보면, ‘蹶(蹶)자에 ‘居月切’으로 注音한 경우는 ‘넘어지다. 꼬꾸라지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전복하다. 좌절하여 무너지다. 금지를 풀다’라는 의미로 인식되었다.(『經典釋文』沒有專門給‘蹶(蹶)’的居月切注音, 但是由上面注異讀的情況來分析, ‘蹶(蹶)’讀居月切的意思是跌倒, 顛倒; 引伸爲顛覆, 挫敗, 解禁.)”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에서는 古代文獻 중에 수록된 ‘蹶’자에 대한 다양한 음의관계를 분석하여 古代漢語 중에서 原始詞의 “넘어지다”라는 의미와 滋生詞의 “움직이다. 동요하다”라는 의미 사이에 음운상의 차이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장세경(2013: 66)의 “뒤엎으려 하다”라는 번역은 漢語變調構詞에서 原始詞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孫玉文(2015)에서는 이 예문에 대해 滋生詞의 음의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사실 『孟子諺解』에서는 “蹶”자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한글로 풀이하지(諺解) 않고 “蹶꺠히시느니”라는 한자표기를 그대로 사용

했고, 장세경(2013)에 의해서야 이 구문을 한글로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孟子諺解』의 저자가 “蹶”자를 정확히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다양한 문헌 근거를 찾아 증명한 孫玉文(2015)의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蹶”字의 古代漢語와 언해문헌에 수록된 韓漢音의 음의관계 수량비교표

古代漢語 “蹶”字의 음의관계		韓漢音(언해)의 대응 횟수		대응비율(%)
		蹶[H꺄]	蹶[R꺄]	
原始詞(短入)	넘어지다.(동사)	-	1	0
原始詞의 인신의(短入)	빠르게 달아나다.(동사)	2	-	100
滋生詞(長入)	동요하다.(동사)	-	1	100
대응비율(%)		100	50	

언해 문헌 중의 “蹶”자는 입성 독음 [H꺄]와 상성 독음 [R꺄]의 용례는 존재한다. 漢語變聲構詞의 原始詞는 短入으로, 滋生詞는 長入으로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고한어의 短入는 중고한어에서 入聲으로, 長入는 중고한어에서 去聲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蹶”자의 원시사는 入聲과 상응하고, 자생사는 去聲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漢語變聲構詞와 언해본의 대응관계가 존재하려면 原始詞는 입성 독음 [H꺄]과 음의관계가 형성되고, 滋生詞는 거성 독음 [H꺄]와 음의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해 문헌에는 거성 독음 [H꺄]는 없고, 단지 상성 독음 [R꺄]만 출현한다. 상성 독음 [R꺄] 가운데 동사로 “넘어지다”라는 의미의 용례는 고대한어의 음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불규칙대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古代漢語 중 音變構詞의 음의관계와 언해 문헌 韓漢音 이독자의 음

의관계의 대응규칙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용례를 골라 이를 도식화하고 계량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古代漢語의 音變構詞 음의관계와 언해 문헌 韓漢音 이독자의 음의관계의 규칙적인 용례와 불규칙적인 용례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언해 문헌의 이독자가 古代漢語 變聲構詞와 관련이 있으나, 古代漢語 變調構詞와 관련이 있으나에 따라 다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총 3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古代漢語 變聲構詞가 언해문헌 異讀字의 音義關係에 규칙대응”하는 유형으로, 해당용례는 “降”字와 “壞”자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古代漢語 變調構詞가 언해문헌 異讀字의 音義關係에 규칙대응”하는 유형으로 해당용례는 “共”자, “斷”자, “巧”자, “當”자 등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韓漢音 이독자와 古代漢語의 音變構詞 간의 음의관계가 불규칙적으로 대응하는 유형으로, 해당용례는 “究”자와 “蹶”자 등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古代漢語 중 音變構詞의 음의관계와 언해 문헌 韓漢音 이독자의 음의관계의 용례를 수량비교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韓漢音 이독자의 수용양상의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古代漢語의 音變構詞, 특히 變聲構詞와 變調構詞의 음의관계의 양상을 대체로 완성하게 보존하고 있다. 다만 언해 문헌 중에서 古代漢語의 上去聲變調構詞와 관련이 있는 일부 용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상거성혼용” 규칙을 적용해야만 해석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參考文獻〉

1. 자료

- [梁]顧野王 著, 『原本玉篇殘卷』, 中華書局, 1985/2004.
 [梁]顧野王 著, [宋]陳彭年等重修,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2004.
 [隋]陸德明 著, 黃坤堯, 鄧仕樑 校訂索引, 『經典釋文』, 學海出版社, 1988.
 [宋]陳彭年, 丘雍等重修, 『廣韻』, 中華書局, 1960.

- [宋]賈昌朝 著, 『群經音辨』, 商務印書館, 1934.
 김무봉 譯著, 『역주육조법보단경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김정수 譯著, 『역주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8.
 정호완 譯著, 『역주번역소학』,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a.
 정호완 譯著, 『역주소학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b.
 장세경 譯著, 『역주논어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
 장세경 譯著, 『역주대학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2.
 장세경 譯著, 『역주중용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2.
 장세경 譯著, 『역주맹자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정호완 譯著, 『역주효경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2. 단행본

- 周法高, 『中國古代語法·構詞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專刊之三十九, 臺灣, 1962.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
 俞昌均, 『삼국시대의 漢字音』, 서울: 민음사, 1991.
 孫玉文, 『漢語變調構詞研究』(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漢語變調構詞考辨』, 北京: 商務印書館, 2015.
 嚴翼相,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 서울: 韓國文化社, 2008.
 權仁瀚,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改訂版), 서울: 도서출판 제이앤씨, 2009a.
 ———, 『中世韓國漢字音의 分析의 研究』(資料篇), 서울: 박문사, 2009b.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何野六郎 著, 李珍昊 譯註, 『한국 한자음의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0(原著出版年度1968).
 伊藤 智^{ゆき} 著, 李珍昊 譯, 韓譯本 『韓國漢字音研究』本文篇/資料篇,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1(原著出版年度2007).

3. 논문

- 周祖謨, 「四聲別義釋例」, 『問學集』, 北京: 中華書局, 1946.
 G. B. Dower(唐納), 「Derivation by Tone-change in Classical Chines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No.22』, London, 1959.
 김영만, 「이조 전기의 한자음의 운율(성조)(I)」, 『한글』, 1967a.
 김영만, 「이조 전기의 한자음의 운율(성조)(II)」, 『한글』, 1967b.

- 孫玉文, 「從“聞”“見”的音變構詞看上古漢語有被動構詞」, 『湖北大學學報』, 2004.
- , 『漢語變調構詞研究』(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 「從變調構詞的角度看中古漢語全濁上聲變去聲」, 『漢語的歷史探討』, 北京: 中華書局, 2011.
- 孫洪偉, 「從『經典釋文』看“見”字見母變匣母的構詞」, 『古漢語研究』, 2009.
- 廉載雄, 「조선초기 언해자료에 반영된 한어변조구사법 활용상황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 61집, 한국중국어학회, 2015.

〈Abstract〉

A Quantity Comparative Study on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of Sino-Joseon Korean Words Recorded
in EonHae (Korean Character Translated) Books

Yum, Jae-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betwee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and the Sino-Joseon Korean words. This study select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which reflect relation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betwee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and the Sino-Joseon Korean words were stereotyped and quantifi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rough this process, there were regular usage and irregular u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and the Sino-Joseon Korean.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whether the variant of Sino-Joseon Korean is related to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or not. It can be seen in all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he type in which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of Ancient Chinese consonant changing words correspond to variants of Sino-Joseon Korean words which were recorded in various documents in Joseon period”, and the applicable examples are “降” character and “坏” character.

The second type is a type in which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of

Acient Chinese tone changing words and phrases correspond to variants of Sino-Joseon Korean words which were recorded in various documents in Joseon period”, and the corresponding examples are “共”, “斷”, “巧”, “當”.

The third type is the type in which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of acient Chinese tone change words correspond to variants of Sino-Joseon Korean words which were recorded in various documents in Joseon period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reader and the sound dynamics of the ancient Chinese is irregular, and the applicable examples are “究” and “蹶”.

Key Words: Sino-Joseon Korean word, Variants of Sino-Joseon Korean,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Acient Chinese consonant changing words, Acient Chinese tone changing words

이 논문은 2017년 4월 17일에 접수되어 2017년 5월 1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